

# 람사르 협약이란?



람사르 협약이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약입니다. 람사르 협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오랜 역사가 있었습니다.

## 보전 재생

물새 서식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환경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생태계로서 폭넓게 습지를 보전하고 재생할 것을 호소합니다.

## 현명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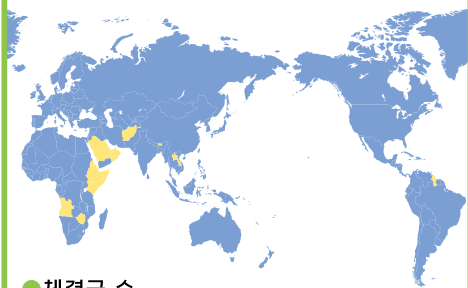
람사르 협약에서는 산업이나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조화를 이룬 보전을 위해서 습지의 '현명한 이용(wise use)'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이용이란, 습지의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얻어진 혜택을 지속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 교류 학습

람사르 협약에서는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하여 사람들의 교류 및 정보교환, 교육, 보급 계발 활동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 람사르 협약 체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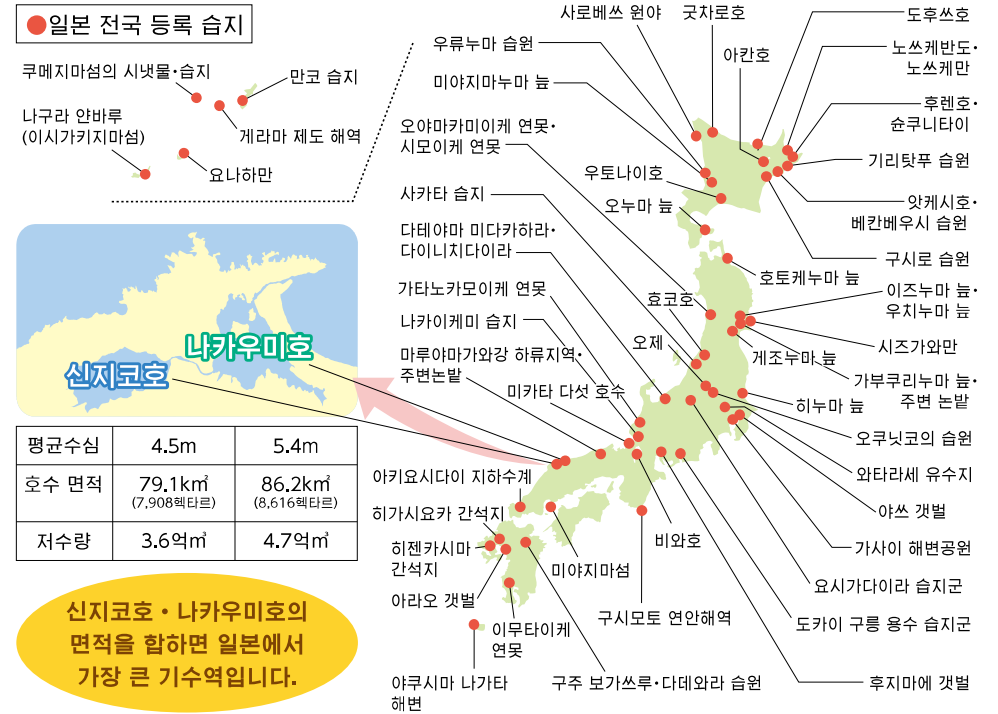
- 체결국 수 **171개국과 지역**
- 협약 등록 습지 **2,416개소**
- 총면적 **254,551,385헥타르** (2021년 3월 현재)

※이 축적에서는 표시되지 않은 작은 나라 및 지역이 있습니다.

# 신지코호·나카우미호 람사르 협약 등록

2005년 11월 8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제9회 람사르 협약 체결국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신지코호와 나카우미호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등록부'에 추가되었습니다. 신지코호와 나카우미호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습지인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호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이 호수의 혜택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일본은 1980년, 구시로 습원을 람사르협약에 첫 번째 등록 습지로 등록하였습니다. 그 후 조금씩 등록 습지를 늘려 2021년 3월 현재 전부 52곳이 있습니다.

### 1. 포켓 메모 습지란?

이것도 습지

저것도 습지

람사르 협약에서는 인공적인 곳도, 때때로 물이 말라 없어지는 곳도, 물이 흐르지 않는 호수 같은 곳도 모두 습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 6m까지의 바다도 포함하고 있어, 대부분 모든 수변이 습지입니다.